

무안, 행안부 '섬 지역 특성화사업' 선정

사업비 50억 확보... '탄도 살기 좋은 섬 개발' 본격 추진

무안군은 행안부 섬 지역 특성화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등 50억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성화 사업은 특수상항지역 내 개발대상(188개소) 섬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무안군은 올해 5월 탄도를 대상지로 사업 신청을 했고 전국 15개소, 전남에서는 무안군과 여

수시가 최종 선정됐다.

행안부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은 지속가능한 섬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고,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해 소득사업과 마을활성화 활동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탄도 특성화사업은 총 4단계의 사업구조로 1단계에서는 마을자원 발굴 및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에서는 1~2개의 단위사업을 진행하며 3단계는 마을계획 고도화와 단위사업을 확장해 최종 4단계에서는 3단계 사업을 더욱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사업의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섬진흥원이 무안군과 협약하여 주민 역량강화, 성과관리, PM단(현장관리단) 운영을 추진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무안의 유일한 유인도인 탄도를 살기 좋은 섬, 지속가능한 섬으로 개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무안=박태연 기자

해남, 지역경제 활성화 '전남도 최고' 道 평가대상 영예...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도 평가대상 영예...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해남군은 전라도에서 실시한 2022년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 결과 대상의 영예와 함께 포상금 1500만 원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해남군은 2020년과 2022년 2차례의 대상 수상을 포함해 4년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기록도 세우게 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는 시군에서 추진하는 우수 경제시책의 발굴 및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수범사례, 물가안정 관리, 중소기업 지원·육성, 소상공인 지원·육성 등 6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해남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왔다.

특히 해남사랑상품권은 지난 2019년 발행 이래 누적 발행 4720억원, 전국 군단위 최대 발행·판매와



함께 서울을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전남 대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해 올해 지방공공요금 3종(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을 동결했으며, 소상공인 대상 상수도 요금 감면과 착한가격업소 지원 강화로 지역 물가 안정화에 노력했다. 특히 전남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지원사업은 비대면 배달 주문 증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차별화된 정책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해남=김동주 기자

목포,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목포시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목포시, 목포시·하당·하나·목포이랜드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목포시지회, 건강나눔, 노인직업훈련센터 등 8개 수행기관에서 3587명의 참여자를 선발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공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참여 희망자는 12~23일까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백신3차 이상 접종확인서를 지참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단 사회서비스형 일반 만 65세 이상, 시장형 일반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가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참여자로 확정되면 내년 1~11월 1일 3시간, 월 30시간 사업에 참여하고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시장형 참여자와 사회서비스형 사업 참여자는 운영규정에 따라 활동비 및 활동시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취업알선형은 2023년에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유형으로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취업상담 및 알선 등을 내용으로 목포노인직업훈련센터(245-2080)가 수행하며, 별도의 모집기간 없이 상시로 상담 가능하다. /목포=김근호 기자

신안군-(주)공감만세,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 체결

민간포털 '위기브'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대대적 홍보

신안군은 최근 (주)공감만세와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포털 서비스인 '위기브(wegive.co.kr)'는 신안군의 고향사랑기부제 활동과 답례품 내역,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모금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간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공감만세가 만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털인



'위기브'의 시연을 보고 기부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답례품 등의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언급하며 "신안군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고두환 대표이사는 "신안군이 위기브에 첫 입점한 자치단체인 만큼 최선을 다해 신안군을 알리고, 이러한 홍보가 성공적인 결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 및 대응 강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신안=박재래 기자

완도, 공무원 행사 취소 '가뭄 대책비 지원'

행사 추진비 급수난 겪고 있는 지역에 재배정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에 들어간 완도군이 공무원 행사까지 취소하며 가뭄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도군은 13일 공직자 한마음 행사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급수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가뭄 대책비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완도군은 공무원들의 화합

과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5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 공무원 한마음 행사를 가져왔다. 하지만 올해는 가뭄 장기화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한마음 행사를 취소하고 4600만원의 예산을 급수, 노화, 소안, 보길, 고금, 약산 지역에 배정할 방침이다.

최악의 가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

과 함께 한다는 취지도 담았다.

재배정된 예산은 생수 구입 등 가뭄 대책비로 쓰일 예정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49년 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공무원 화합행사를 취소했다"며 "공직자들도 생활속물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가뭄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강진 소하천 정비... 안정적 영농 활동 기대

작천면 갈동천·신전면 수양천 44억 원 투입

강진군이 재해예방(복구) 치수사업의 일환으로 작천면 갈동천 및 신전면 수양천 정비사업으로 기존 소하천에 제방을 보강하고, 퇴적토 준설, 배수문 정비 등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한다고 13

일 밝혔다.

2021년 2월 착공한 갈동천은 총사업비 29억 원을 투입해 작천면 갈동리 및 군자리에 연장 0.6km, 교량 4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2022년 6월 착공한 수양천은 신전

면 수양리에 연장 0.44km, 교량 3개소, 수로교 1개소를 내년까지 마무리한다. 지난 2021년 7월 5일부터 8일까지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로 인해, 총사업비 15억 원 중 국비를 50% 지원받았다.

이번 사업의 시행으로 상습 침수 지역이던 농경지의 피해를 예방하고 일부 농로 확장 및 교량 재가설로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한홍수 기자

진도, 안전사고 예방 기관 간담회 개최

겨울철 화재·교통사고 등 안전대책 논의

진도군이 겨울철 군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군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진도군, 진도경찰서, 진도소방서, 목포해경 진도파출소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분야별 안전사고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안전 불감증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각 기관별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

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또 겨울철 화재, 교통사고, 선박·농기계 사고 등에 대한 다양한 예방 대책을 제시하고 협조 사항도 함께 공유했다.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안전 유관기관 간담회는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열었다"며 "간담회를 계기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한층 강화시켜 안전한 진도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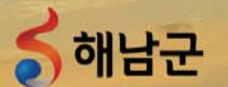
영암, 과수 정지전정 기술교육 실시

영암군은 지역특화작목인 대봉감 과 단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과수(감) 정지전정 교육'을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선도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8일 이론교육에 이어 9일에는 참여 농업인의 감재배 농장에서 현장실습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정지전정은 고품질의 과일 생산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과수재배의 기

본인 수세관리를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결실관리와 과일품질 유지를 유도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우리지역 대표과일인 대봉감과 단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향후 추가적인 정지전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 참여자가 지역내 올바른 정지전정기술 보급의 전도사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땅끝해남 스카이워크